



새 정무부지사 누구... “경제 살릴 인물을”

道, 안동우 부지사 후임 물색 중... 인선 결과 관심
경기침체 등 상황 속 ‘경제부지사’ 발탁 목소리도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전격 사의표명으로 제주도의 후임자 물색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의 네번째 부지사가 되는 이번 안 부지사 후임은 공직자를 비롯해 도지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발탁했던 것과 달리 위기의 경제상황 등을 돌파할 수 있는 경제전문가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을 추석연휴를 앞두고 도내 1차산업 발전과 제주연안 해결에 공헌한 안동우 정무부지사(57)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고, 제주도는 안 부지사

의 뜻을 수용기로 했다. 이어 추석연휴가 끝남에 따라 후임 정무부지사를 임명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원 도정은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박정하 전 청와대대변인을 임명했으며,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후 2017년 7월 임명된 민선 6기 마지막 정무부지사였던 안 부지사는 민선 7기 출범에도 동참했다. 하지만 안 부지사가 훗날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또다른 전문가(?)를 물색해야 하게 됐다.

민선6, 7기는 물론 앞선 도정들도

환경부지사 등 이름난 달랐을뿐 정무부지사 선임에 고심이 많았었다. 반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두고 갑론을박이 잦았었다. 대부분 대의회 관계나 민원에 깊숙히 개입해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비교적 한계가 있는 역할을 맡았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지역적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전문가를 정무부지사로 선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도 경제부지사 선택의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갑골 등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인 산업구조상 향후 경제위기에 불확했을 때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다는 점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임명할 때가 된 것 같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나서서 의회관계는 물론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경제부지사는 아니더라도 경제통이 정무부지사를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경제부지사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을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바꾸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특정인을 위한 인물을 배제하고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발탁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상윤기자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❶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❷ 같은 날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작업을 벌이는 한편 ❸ 포클레인으로 살처분 매물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홍해삼 살기 좋은 여장에
종자 27만마리 집중 방류

도, 자원조성 효과도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문관)은 수산생물 서식처 보전을 위해 홍해삼 종자 27만 마리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7개 마을 여장에 집중 방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주요 서식처로 꼽히는 우도 홍해삼 양식지에 대해 종자 12만 마리를 집중 방류해 자원 조성의 효과성도 분석할 예정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종인 홍해삼의 마을여장 생산량은 2006년 방류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38t에서 2017년에는 106t, 2018년 100t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홍해삼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원량의 감소이기 보다는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산지 출하량 감소, 고령해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어획 강도가 점차 낮아지는데 따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홍해삼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가공 및 축양기술 개선연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종자 방류 전 사전 적지조사, 방류기법 개선 연구 등 자원조성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소통협력공간’ 만든다면서 소통 앓는 제주시

시, 내달 중순 개소 예정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없어
운영 실효성 놓고 우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시민과의 소통 부족 속에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 120억원(국비 60억, 지방비 60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민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

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해결 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민간위탁을 통한 본격 운영에 앞서 10월 중순부터 시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소통협력센터로 운영될 제주시 관덕로에 위치한 옛 미래에셋대우(주) 제주사옥 매입절차(60억 원 투입 예정)를 완료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18일부터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은 행정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면서 향후 주민 참여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되고 승

가쁘게 절차가 진행되다보니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며 “올해 운영하면서 설명회 형식은 아니더라도 토론회, 세미나, 토크쇼 등을 통해 공론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제주시는 평생학습관을 소통협력공간으로 세단장재 재美난리빌립, 체인지메이커 스페이스, 할머니 시민학교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실험과 재미있는 사회학습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주시 평생학습관을 비우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이 철저한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제주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외국인근로자 상담, 언제 어디서나”

센터내 콜센터 등 구축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각종 생활불편,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내에 상담콜센터와 웹서비스(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정지원사업(특별교부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 문화, 주거,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제공하고, 상담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외

국인근로자들의 상시 도움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개 국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77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154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이동 391건, 출입국관련 156건, 의료 66건, 폭행 64건, 산재 46건, 기타 등이다. 오은지기자

제1회 ‘제주언론인 賞’ 수상후보자 추천

사)제주언론인클럽은 제주지역 언론문화의 창달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0년 2월 창립했습니다. 우리 클럽은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제주언론인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주언론인 상’은 제주지역 언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언론인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제주언론 발전을 추동하고 언론인의 긍지를 높여 클럽 창립목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1회 ‘제주언론인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 음

1. 추천대상

○제주도내 언론계에서 활동한 전·현직 언론인

2. 시상 부문

○제주언론인 상 ‘대 상’: 상패 및 상금

○제주언론인 상 ‘특별상’: 상패 및 상금

3. 추천 자격

○제주도내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의 장

○제주언론인 10명 이상(연대서명)

4. 제출서류

○추천서·이력서·공적서 각 1부 (본 클럽 소정양식)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10인 이상의 제주언론인 연서추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접 수

○접수기간: 2019년 10월 1일~10월 15일

○접수방법: 이메일(go2002y@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사단법인 제주언론인클럽

[63117] 제주시 명주길 30-5

6. 수상자 발표: 언론보도 및 개별 통보

7. 시상식

○일 시: 2019년 11월8일(금) 16:00~17:00(예정)

○장 소: 아스타 호텔 (제주시내 서사라)

8. 기 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자세한 사항은 사)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010-3697-1578, 010-4699-2379)로 문의요망.

※ 추천서·이력서·공적서 양식은 사)제주언론인클럽 홈페이지(journalistclub.7581.c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일

사단법인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이 용 길

「애월문학 10호」출판기념 및 ‘해녀문학의 밤’에 초대합니다.

살의 자리에서 저마다 바지런히 살아왔기에 이제 결실의 풍성함을 희망합니다.
‘애월 해녀’를 특집으로 다룬 「애월문학 10호」출판과 애월해녀들의 삶과 꿈을 응원하는 자리,
‘애월문학 10호 출판기념 및 해녀문학의 밤’에 초대합니다.
부디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9년 9월 20일 오후 6시

장소 하귀농협 복지센터 5층 레아 웨딩홀 (일주서로 7020)

애 월 문 학 회 회장 김순신

후원

JFA 제주문화예술재단

제5회 평대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모교 사랑! 땀을 흘리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교사랑! 동문화합!』이라는 기치 아래 동문회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모교 발전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제5회 평대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동문회원님과 가족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10:00 (등록 09:30~)

□ 장소: 평대초등학교 운동장

• 경기종목: 축구, 줄다리기, 윷놀이등

• 연 락 처

장 이동여 (010-7155-4407)

수석부회장 김장영 (010-3692-2363)

여성부회장 김철순 (010-2078-9613)

총무이사 이상현 (010-4692-4698)

체육이사 김상철 (010-3119-2343)

사무처장 부철희 (010-2800-1242)

평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동여